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 새 움 터

제 26호 2004년 4월

전화: 031)867-4655/ 팩스:031)867-3031/ 이메일 swoom@chol.net/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12-49 우)483-060  
전화: 031)663-4655/ 팩스:031)663-4611/ 이메일 swoom@chol.net/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2동 274-117 우)459-122



새움터 로고입니다.

밝고 환한 세상을 향해 점점 위로 치솟고 있는  
언니들의 모습입니다. 서로서로 머리맞대고 더불어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언니들의 희망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는글 2/ 기획글 3~12 / 아이글 13 / 새움터소식 14~17/ 자활후기 18~19 /  
새활후기 20~22/ 도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3~26/ 함께 할 분을 만나고 싶  
습니다 27

## 【여는 글】

백년만에 내린 3월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아침.... 얼마뒤면 연두빛으로 물들 먼 산을 기대했던 마음이 부질없이 느껴져 혼자 맥없이 웃어봅니다.  
봄인가 싶어 얇은 옷을 꺼냈다가 깜짝 놀라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 봅니다.

새움터에 항상 애정 듬뿍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그동안 애타게 새움터의 소식을 기다려오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한없이 기쁘답니다.

새움터 식구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 움추렸던 몸을 활짝 펴면서 따스하고 아름다운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따스함과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이들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상처주지 않고, 서로 어깨를 보듬어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움터는 앞으로도 계속 뛰어다닐 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니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희망을 일구어 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니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새싹을 틔워 튼튼한 희망을 키워나가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크고 튼튼한 나무 한 그루씩 심어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씨를 거두어 또 다른 이의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려 뿌리내리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려합니다.

꽃샘추위에 몸은 시리지만 마음은 이 추위 끝에 찾아올 따스한 봄을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벌써부터 봄을 만나고 있습니다.